

《두시언해》 권 6 의 번역에 대한 몇 가지 이견

임홍빈 *

초 록

본고는 《두시언해》 권 6 의 번역에 나타나는 몇 가지 오류 또는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어휘나 구절에 대하여 필자로서 가능한 몇 가지 이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언해’와 ‘번역’에 대하여 그 차이를 분명히 하여 논의의 출발점을 선명히 하도록 하였다. 가령 ‘소학언해’가 있고, ‘번역소학’이 있을 때, 왜 앞의 것에는 ‘언해’란 말을 붙이고, 뒤의 것에는 ‘번역’이란 말을 붙였는가에 대하여 책의 체제와 번역의 양상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고구하였다. 《두시언해》 권 6 의 번역 문제에 대해서는 i) 역사 문화적 사실과 관련된 문제, ii) 어휘와 관련된 문제, iii) 문법과 관련된 문제의 셋으로 나누어,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i) 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잘못된 것을 문제삼았고, 문화적으로 등가성을 가질 수 없는 사물의 번역 문제를 다루었다. ii) 에서는 어휘적인 번역의 오류 및 부적합성의 문제를 다루었고, iii) 에서는 문법적인 성분이나 구성에 대한 잘못된 분석을 다루었다.

주제어 : 두시언해, 언해, 번역, 직역, 의역, 역사적 사실, 문법적 분석

* 首爾大學國語國文學系名譽教授。

I. 머리말

《두시언해》¹는 한국 번역문학의 금자탑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만큼 《두시언해》에는 우리 조상들의 많은 지혜가 담겨 있고, 두보와 그의 시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 더불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담겨 있다.² 그럼에도 《두시언해》에는 그 언해 혹은 번역에 작은 흠결들이 있다. 본고는 《두시언해》 권 6에 나타나는 몇 가지 흠결에 대하여 필자로서 가능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에서는 본고의 기술을 위하여 번역과 관련된 층위를 살펴보고, 제 3 절에서는 《두시언해》의 번역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문제, 어휘와 관련된 문제, 문법과 관련된 문제들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기로 한다. 제 4 절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마무리를 짓기로 한다.

《두시언해》 권 6³에는 초간본이 있고, 중간본이 있다. 흔히 중간본을 초간본을 완전히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다. 중간본에서는 초간본의 옻이음(◌)과 반치음(Δ) 표기가 완전 사라진 외에도, 초간본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있고, 일부는 번역을

¹ 《두시언해》의 원제는 《분류두공부시》이다. 이를 흔히 《분류두공부시언해》라고 하며, 약하여 《두시언해》라고 한다. 《두시언해》가 간행된 시기를 흔히 성종 12년(1481)으로 보나, 이는 제 1 권 간행이 성종의 승인을 받은 해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초간본 《두시언해》 25 권 전체의 완간은 1489년 즈음인 것으로 보인다. 졸역주(2011: 27) 참조.

² 《두시언해》에는 다른 어느 문헌에서도 만날 수 없는 우리말 고유어가 상당수 번역에 사용되고 있다. 《두시언해》가 아니었으면 이들 고유어는 영영 사라져 다시는 찾아질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언해자들의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³ 본고는 필자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고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여 《두시언해》 역주 작업에 일부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더 좋게 하려는 시도도 나타난다. 이에는 경상감사 오숙과 대구부사 김상복의 노력이 뒤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초간본뿐만 아니라 중간본도 부분적으로 참조하기로 한다. 《두시연해》 권 6에 대해서는 이미 이현희 외 (1997)의 번역과 역주가 있다. 본고는 이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 고마움을 표시하기로 한다.

II. 언해와 번역의 층위

1. 번역의 성격과 등가성 (等價性)

번역 (Translation, T.)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번역은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된다 (유명우 2000 참조). 이때 번역되는 글을 원전글 (Source Text, ST) 또는 원문, 번역의 결과 얻어지는 글을 목표글 (Target Text, TT) 또는 번역문이라 한다. 원문과 번역문은 모두 문자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번역이 문자 언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Jakobson(1957)에 의하면, 번역은 전통적인 의미의 언어간 번역 (Inerlingual T.), 다른 기호 사이에 일어나는 언어 기호간 번역 (Intersemiotic T.), 같은 언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언어 내적 번역 (Intralingual T.)과 같이 나뉜다.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것’이란 번역의 정의는 언어간 번역에만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나라 말을 다른 말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 몇 가지 단계로 나뉜다. 원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영번역 (零翻譯, Zero T.), 원어의 음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음성 번역 (Phonetic T.) 또는 음역 (音譯), 원어의 의미에 해당되는 말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의미 번역 (Semantic T.)의 세 가지가 그것이다. 가령, 영어의 sports/sport를 한국어 문맥에서도 그대로 ‘sports’라고

쓸 경우, 이는 원어 차용으로 영번역의 예가 된다. 학자들의 학술논문

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이다. 외래어가 아직 번역되거나 정착되지 않아 원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이다. 이번에는 sports/sport 를 ‘스포츠’와 같이 한글로 쓸 경우,⁴ 이는 음성 번역, 또는 음역의 예가 된다. 다시 더 나아가 sports/sport 를 ‘운동’⁵ 으로 번역한다면 그것은 의미 번역 또는 의미역 (意味譯)⁶ 의 예가 된다.

번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문 (ST) 과 번역문 (TT) 의 등가성 (等價性, Equivalence) 을 기준으로 검증하게 된다. Nida(1964) 에서는 등가성을 형식적 등가성 (Formal Equivalence) 과 역동적 등가성 (Dynamic Equivalence) 의 둘로 나누고 있다. 형식적 등가성은 전언 (傳言, Message) 의 정보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번역으로, 이는 우리가 흔히 직역 (直譯)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역동적 등가성은 정서적 등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독자가 원문을 읽을 때 느끼는 정서적 효과를 번역문을 읽을 때에도 느낄 수 있게 하는 번역을 말한다. 이에 는 우리가 흔히 의역 (意譯) 이라고 부르는 것이 해당될 것이다.

번역의 등가성이라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가령 ‘스포츠’라는 말을 보더라도 그 원어를 많은 한국인들은 영어의 /sports/ 라고 알고 있으나, 그 원어는 /sports/ 가 아닌 /sport/ 이다. 영어의 /sports/ 는 복수형이거나 형용사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스포츠’는 복수형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다. 한국어의 ‘스포츠’는 아마도 어말 [t] 를 그대로 표기할 수 없는 일본어 ‘スポーツ’의 영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한국어의 ‘스포츠’에 대하여 그것은 영어의 복수형 /sports/ 를 음역한 것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⁴ 이는 유명우 (2000: 237-8) 의 예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해석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⁵ 국어사전에서는 ‘스포츠’를 ‘운동 경기’로 풀이한 사전이 많다. 그러나 ‘운동’과 ‘운동 경기’는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혼자서 하는 새벽 산책을 ‘새벽 운동’과 같이 말할 수 있으나 ‘새벽 운동 경기’라고는 할 수 없다.

⁶ 의미역 (意味譯) 은 의역 (意譯) 과 구별된다. 의미역은 원천 언어의 의미를 목표 언어의 의미로 대응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역은 번역 양상의 하나로 직역에 대립된다.

우리의 ‘스포츠’는 복수형이 아니다. 이 경우, 한국어의 ‘스포츠’와 영어의 /sport/ 의 등가성은 어떻게 되는가 물을 수 있다. 정확하게 등가성을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국어에서는 ‘아침 산책’을 ‘스포츠’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서 분명히 ‘운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영어의 /sport/ 와 한국어의 ‘스포츠’는 의사(擬似) 등가성을 가진 것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⁷

이러한 논의에 잘 등장하지 않는 것은 번역의 층위에 관한 문제이다. 언어학의 층위에는 음운론적 층위가 있고, 형태론적 층위가 있고, 통사론적 층위가 있다. 번역에는 이 밖에 역사 문화적 사실과 관련된 층위가 있을 수 있고, 언어적 층위가 있을 수 있는데, 언어적 층위를 좀더 세분하면, 어휘적 층위와 문법적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어휘에는 음운, 형태, 통사적 정보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어휘 의미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어휘적 층위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반면, 어휘적 층위 외의 다른 구성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층위를 문법적 층위라 부르기로 한다.

2. 언해와 번역

국어사 자료에는 ‘언해’라는 이름을 가진 자료가 많다. 《소학언해》, 《노걸대언해》 등과 같은 자료이다. 《두시언해》도 그러한 자료의 하나이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번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료이다. 《번역소학》이나 《번역노걸대》와 같은 자료이다. ‘언해’나 ‘번역’이란 이름을 가지지 않은 자료도 있다. 《천자문》, 《훈몽자회》, 《신증유합》과 같은 자료이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의 하나는 자료의 성격 혹은 구성과 서명이 가지는 상관성이다.

⁷ sports/sport 를 “運動競技”와 같이 한자로 쓸 경우, 유명우(2000)은 이를 한문역(漢文譯)이라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한문역이 먼저이고, 한글화가 나중의 일이므로, ‘한문역’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 한문역이라는 것이 음성 번역이나 의미 번역과 동일한 차원에 설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먼저, 《천자문》, 《훈몽자회》, 《신증유합》 등과 같은 자료에는 그 서명에 ‘언해’나 ‘번역’과 같은 말이 쓰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가령 《천자문》의 한자 하나하나에는 ‘天 하늘 텃; 地 짜 디, 玄 가물 현, 黃 누르 황’과 같이 훈(訓)과 음(音)이 달려 있다. 위에 보인 [스포츠]의 예에서 보면, ‘天’에 대한 ‘하늘’은 의미 번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텃’은 ‘천(天)’의 음을 나타낸 것으로, 음성 번역 즉 음역이라 할 수 있다. 《천자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天地玄黃’이란 구절에 대한 의미 번역, 즉 의미역이다. 이는 《훈몽자회》에서도 같고, 《신증유합》에서도 같다. 구절의 의미에 대한 번역이 붙어 있지 않다. 《훈몽자회》이나 《신증유합》은 한자를 배우기 위한 교과서로 구절의 의미를 전제로 하지 않은 문헌이다. 한자 하나하나의 음과 훈만이 문제된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경우 그 서명에는 ‘언해’나 ‘번역’과 같은 명칭이 붙지 않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 구절(句節) 번역의 결여와 서명

한국어사의 자료 중 한글 번역을 가지지 않고 단지 한자의 음과 훈을 한글로 적은 자료에는 ‘언해’나 ‘번역’과 같은 서명을 붙이지 않았다.

이제 ‘언해’와 ‘번역’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언해’에는 무엇보다도 한문 원문이 주어진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문 구성을 이루는 한자에는 그 음이 달린다. 가장 자세한 것은 정음(正音)과 속음(俗音) 둘이 나란히 적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속음이 하나 적힌다. 《두시언해》는 아주 특이한 예로 대문 한자에 어떠한 한자음도 적히지 않고 있다. 《두시언해》가 한자 한문에 익숙한 유학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 그러나 이는 문화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추측인 것으로 여겨진다. 《두시언해》는 그 해독이 매우 어려운 문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두시언해》에는 한자도 기자(奇字), 벽자(僻字)가 수도룩하다. 아무리 유학에 익숙한 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들 한자에 두루 익숙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을 한다면, 편찬자들은 아마도 《두시언해》의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한자음 표시를 생략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언해’에는 원문의 한자 하나하나에 음(音)이 달리는 외에 원문의 어려운 한자 및 구에는 ‘주석(註釋)’을 달았다. 그리고 흔히 원문의 구절에 해당하는 위치에 우리말 토(吐), 즉 구결(口訣)을 달고, 절이 끝나는 위치에 우리말 번역을 붙였다. 《두시언해》의 경우에는 원문의 구절에 우리말 토를 붙이지 않았다. 이것이 다른 언해본과 《두시언해》가 가지는 두드러진 차이의 하나이다. 주석의 유무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문헌은 《소학언해》와 《번역소학》이다. 대응되는 한 구를 다음과 같이 보기로 한다.

2) 가. 詩曰·왈天埏生싱蒸증民민헝샤(《번역소학》 6:1a)

나. 毛詩·예 ㄱ·로·디 하·늑·리 모·돈·빅:성·을:내·샤(《번역소학》 6:1b)

3) 가. 詩曰·왈天埏生싱蒸증民민헝시니(《소학언해》 5:1b)

나. 詩[모시蒸증民민이라]예 굴·오·디 하·늑·히 모·돈·빅:성·을:내·시니(《소학언해》 5:1b)

(2가)는 《번역소학》의 현토 원문을 보인 것이며, (2나)는 (2가)의 번역을 보인 것이다. (3가)는 《소학언해》의 현토 원문을 보인 것이며, (3나)는 (3가)의 번역을 보인 것이다. (2나)의 본문에 보이는 ‘모시(毛詩)’는 현토 원문에 없는 정보인데, 그것이 (3나)에서는 꺾쇠괄호 속에 보인 바와 같이 주석으로 되어 있다. 언해에는 현토 원문에 없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2나)는 우리말 형태소가 연결된 것이 많은 반면, (3나)에서는 우리말 형태소가 분절된 것이 많다. 가능하면 한자 하나에 한글 한자를 대응시키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2나)가 의역(意譯)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3나)는 직역(直譯)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번

역'원문의 의미 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언해'는 한문의 이해와 함께 그 내용에도 관심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⁸

'언해'와 '번역'이 주석도 가지지 않고 거의 동일한 구성과 형식을 보여주는 것은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와 《노걸대언해》와 《박통사언해》와 같은 예이다. 《노걸대언해》와 《번역노걸대》의 첫 구절을 보기로 하자. 정음과 속음 표시, 성조 표시 등을 삭제하기로 한다. 편의상 띄어쓰기를 적용한다.

4 가. 大哥○큰형님 你從那裏來○네 어드러서브터 온다 (《번역노걸대》 2:1a)

나. 大哥你從那裏來○큰형아 네 어드러서브터 온다 (《노걸대언해》 2:1a)

형식상 (4 가)는 원문의 '大哥'를 분절한 데 대하여 (4 나)에는 그러한 분절이 없다. 이 외에 (4 가)에는 '큰형님'이라는 높임말이 쓰이고 있으나, (4 나)에는 그러한 높임말이 쓰이고 있지 않다. (4 가)의 '형님'의 '-님'은 (4 가)의 원문에는 없는 정보이다. 그것은 한국어의 문맥을 번역에 도입하여 의역(意譯)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언해'는 직역의 성격을 가진다. '언해'는 번역을 통하여 한문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5 가. '언해'는 한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직역의 성격을 가진다.

나. '번역'은 원문의 의미 파악을 위하여 의역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의 《두시언해》 권 6은 (5 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많은 주석을 가지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번역이 직역의 성격을 가지

⁸ (2 나)와 (3 나)의 구결의 차이는 의미 내용의 파악과 관련된다. (2 나)의 '-아/어'는 그 의미 관계가 밀접한 연결 관계를 나타내고, (3 나)의 '-으니'는 전제된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 연결이 다소 소원하다.

는 것이 아니다. 때로 의역이 도입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언해의 번역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석에 포함된 문제에도 관심을 두기로 한다.

III. 《두시언해》 권 6의 번역 문제

1. 역사 문화와 관련된 문제

1) <생우(笙竽)와 피리>

(1a-b)의 원문 ‘만리진생우(萬籟眞笙竽)’의 ‘생우(笙竽)’를 언해는 ‘더와 피릿소리’로 번역하였다. 언해는 원문의 ‘생(笙)’을 ‘더’로, ‘우(竽)’를 ‘피리’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번역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생우(笙竽)’에서 ‘생(笙)’은 수직파이프로 구성된 중국의 황관(簧管) 악기이다. 황관이 13 ~ 19개인 것이 ‘생(笙)’이고, 36개인 것이 ‘우(竽)’이다. ‘생(笙)’과 ‘우(竽)’는 모양과 구조가 비슷하므로, 흔히 ‘생우(笙竽)’로 붙여 쓴다. 번역문의 ‘피리’는 원문의 ‘우(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더’와 ‘피리’가 어떻게 구별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더’는 ‘적(笛)’에서 온 것이므로, 리드를 가지지 않은 악기를 뜻하고, ‘우(竽)’는 리드를 가진 악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더’와 ‘피리’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의 ‘피리’는 일반적으로 리드가 없이 몇 개의 구멍을 막아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우(笙竽)’를 합쳐서 ‘피릿소리’로 하거나 ‘생우(笙竽)’ 소리와 같이 번역하여 주석을 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우’를 그대로 쓰는 것은 위에서 본 ‘영번역’에 해당한다.

2) <신령과 신상>

(2a)의 좌 3행의 원문 ‘입신부동량(立神扶棟樑)’를 언해는 ‘신령(神靈)을 세여 동량(棟樑)을 더위자팠고(신령을 세워 들보를 지지하였고)’

와 같이 번역하였다. ‘입신 (立神)’의 ‘신’은 ‘신상 (神像)’을 뜻하는 것으로, 신상을 새긴 기둥이 집의 들보를 받치게 한 것이다. ‘입신 (立神)’의 ‘신’을 ‘신령’으로 번역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신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동량을 부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령 (神靈) 를 세워”보다는 ‘신상 (神像) 을 세워’가 더 적합하다. (12b)의 ‘황은단약신 (皇恩斷若神)’을 언해는 ‘님굼 恩惠로 決斷호미 神靈 곧 ㅎ면’으로 번역하였다. 여기서 ‘신령’은 우리가 흔히 ‘신령님’이라고 부르는 말과 같다. ‘신령’은 영험한 기운이 있고, 흰 머리와 긴 수염을 가진 인자한 할아버지 모양의 존재이다. 그래서 신령을 조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꿇꿇’과 ‘돛가비’는 반드시 사람 모양의 귀신이 아니다. ‘황은단약신 (皇恩斷若神)’은 다른 문헌에 의하면 원문이 ‘황명단약신 (皇明斷若神)’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신과 같이 명쾌하게 결단하면’과 같은 뜻이다. 여기서도 ‘신’은 사람과 같은 형상의 존재로 결단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이 명쾌하게 결단을 하는 것과 같은 일화를 본 일이 없다. 신령은 인자하게 베푸는 신이다.

3) <오야 (五夜) 와 오경 (五更)>

(4a)의 원문 ‘오야루성최효전 (五夜漏聲催曉箭)’의 ‘오야 (五夜)’를 언해는 ‘다섯 바닷’의 ‘다섯 밤’과 같이 번역하였다. 여기에 주를 ‘五夜는 甲乙丙丁戊1라 (오야는 갑야, 을야, 병야, 정야, 무야라)’와 같이 달았다. 이렇게 되면, ‘오야 (五夜)’는 ‘온 밤’을 전체로 가리키게 된다. 그것이 포함된 문맥은 ‘다섯 밤의 물시계 소리는 새벽의 살을 재촉하니’와 같이 된다. ‘다섯 밤’을 ‘온 밤’으로 해석하면 전날 저녁에도 물시계의 살이 다음날의 새벽을 재촉하였다는 것이 된다. 적합하지 않다. ‘오야’는 ‘온 밤’을 뜻한다고 보다는 ‘제오야 (第五夜)’ 즉 하룻밤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맨 마지막 부분 즉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시각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쓰던 이름은 ‘오경 (五更)’이다.

4) < 현종과 숙종 >

(18a)의 원문 ‘중사일야계 (中使日夜繼) 유왕심불녕 (惟王心不寧)’을 언해는 ‘內使 | 밤나지 니어 오느니 님그미 막스물 / 막으물 便宜히 문 (문) 너겨 하시돏다 (내사가 밤낮으로 이어 오는데, 임금이 마음을 편안히 여기지 못 하시도다)’와 같이 번역하였다. ‘내사’는 ‘중사(中使)’를 번역한 말로, ‘중사’는 천보 10년 1월에 태묘(太廟)에 중사를 두고 능묘의 청소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당(唐) 이래 내관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이현희 외(1997: 143) 참조). 그런데 여기에 달린 주석이 문제이다. 주석은 ‘숙종이 연모하시어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여 내관으로 하여금 매일 제물을 보낸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양귀비나 그 언니 귀국부인 등과 사귄 것은 숙종이 아니라 현종이다. ‘천보(天寶)’는 하늘이 내린 보물 즉 양귀비를 뜻하는 현종 때의 연호이므로, ‘연모’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제물을 보낸 것은 현종이므로, 이를 숙종으로 언급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잘못 반영한 것이다.

2. 어휘와 관련된 문제

1) < 불휘 > 와 < 성터 >

《두시언해》 18 쪽의 뒷면 즉 (18b)의 원문 ‘금성축준지 (金城蓄峻趾)’를 ‘金城은 큰 불휘 儲蓄하시엿고’와 같이 번역하였다. 여기서 ‘큰 불휘’에 해당하는 것은 ‘준지(峻趾)’이다. ‘지(趾)’는 일상적으로는 ‘발. 발가락, 발자국’과 같은 뜻을 가진 것인데, 이를 어떻게 ‘뿌리’라고 번역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금성축준지(金城蓄峻趾)’를 ‘금성에는 높은 터가 쌓여 있고’와 같이 번역한 예가 있다.⁹ 지(趾)’는 성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면, ‘금성축준지(金城蓄峻趾)’는 ‘금성에는 가파른 산에 성터가 쌓여

⁹ 이현희 외(1997: 140) 참조. 이현희 외(1997: 151)에서는 ‘뿌리’로 풀이하고 있다.

있고'와 같이 된다. '쌓여 있다'는 '많이 남아 있다'는 말이다. 이를 반영하면, '금성에는 가파른 산에 성터가 많이 남아 있고'와 같이 된다.

2) < 무우 (舞雩) > 와 < 풍우 (風雩) >

(21b)의 원문 '신신주자행 (旣侑胄子行) 약무풍우지 (若舞風雩至)'를 언해는 '旣侑 胄子의 行列이로소니 風雩에 춤쳐 오는 듯흐도다 / 듯흐두다'와 같이 번역하였다. 문제는 아랫구이다. 이 구를 주석에서는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풍호무우 (風乎舞雩)'에서 온 구절로 '舞雩는 祈雨處 | 니 此는 言學者 | 若舞風雩而來也 | 라 (무우는 기우제를 드리는 곳이니, 이는 배우는 자가 바람부는 기우제를 드리는 곳에서 춤추면서 오는 듯함을 말한다)'와 같이 주석을 달고 있다. 그런데 《논어》의 구절은 '풍호무우 (風乎舞雩)'와 같이 된 것이다. '풍호무우 (風乎舞雩)'는 공자가 일찍이 자로 (子路), 증점 (曾點), 염유 (冉有), 서화 (公西華) 등에게 자기의 뜻을 말해 보라고 하였을 때, 다른 사람은 모두 현실 정치에 관한 뜻을 말하였으나, 증점은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자 5, 6 인, 동자 6, 7 인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고 시를 읊조리며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무우'는 일종의 지명으로 기우제를 올리는 곳이다. 따라서 '약무풍우 (若舞風雩)'는 '풍'과 '무'가 바뀐 것으로 두시 원문과 언해의 주석은 '약풍무우 (若風舞雩)'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고,¹⁰ 그 번역도 '무우에서 바람을 쐬듯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해와 주석은 원문의 '약무풍우지 (若舞風雩至)'에 이끌린 것이다. 이에는 원문의 책임도 있다.

3) < 몸 > 과 < 실체 >

(23b)의 원문 '참귀룡봉질 (讖歸龍鳳質)'을 언해는 '참 (讖) 이 용봉

¹⁰ 이는 이현희 외 (1997: 165) 에서도 지적된 것이다. '무풍우이래 (舞風雩而來)'를 '풍무우이래 (風舞雩而來)'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도 같이 본다.

(龍鳳)스 모매 가니 (예언 / 조짐이 용봉의 몸에 가니)와 같이 번역하였다. ‘예언’이나 ‘조짐’을 뜻하는 ‘참 (讖)’을 그대로 옮긴 것은 ‘영번역 (Zero Translation)’의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문제는 원문의 ‘질 (質)’을 ‘몸’으로 번역한 것이다. 주석에서는 ‘당 태종은 용과 봉의 자 (姿)’라고 하고 있다. 이는 용과 봉의 외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에 가깝다. 이와 대립되는 것이 내면적인 측면이다. ‘몸’을 내면적으로 보면, ‘질 (質)’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나 ‘몸’은 실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체는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4) < 초절 > 과 < 천리마 >

(24a)의 원문 ‘풍운수절족 (風雲隨絕足)’을 ‘바람과 구름이 초절 (超絶)한 발을 조초니 (바람과 구름이 뛰어난 것을 좇으니)’와 같이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 번역은 아주 이해하기 어렵다. ‘초절 (超絶)’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¹¹ 주석에서도 ‘절족 (絶足)’을 좋은 말의 다리가 뛰어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여전히 ‘초절 (超絶)’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절족’은 한성무 (1997: 172)에 보인 바와 같이 ‘천리마 (千里馬)’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 구절은 ‘바람과 구름이 천리마를 좇으니’와 같이 된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해진다.

5) < 비승 (丕承) > 과 < 제업 (帝業) >

(25b)의 원문 ‘비승집무위 (丕承戢武威)’을 언해는 ‘키 니어武威를 가드쌌다 (크게 이어 무위를 거두셨다)’와 같이 번역하였다. 문제는 ‘비승 (丕承)’을 다만 ‘크게 이어’와 같이 번역하여서는 그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현희 외 (1997: 191)에서는 ‘고대에 제왕이 천명을 받을

¹¹ 이현희 외 (1997: 178)에서는 이를 ‘뛰어난 말’로 번역하고 있다. 이현희 (1997: 184)에서는 ‘초절 (超絶)한 발’로 풀이하고 있다.

때 쓰는 상투어'로 보고 이를 '하늘을 크게 이어'와 같이 해석하였다. 여기서는 '천명을 받는 것'이나 '하늘을 크게 이어'의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다. '비승'을 '천자가 제업(帝業)을 이어 받는 것'으로 보면 문의(文意)가 더 분명해진다.

6) <햇빛> 과 <그림자>

(28a)의 '취백심류경(翠栢深留景)'을 언해는 '푸른 잣니펜 비치 기피 머므렛고(푸른 잣잎에는 햇빛이 깊이 머물러 있고)'와 같이 번역하였다. 그런데 번역과 달리 원문에는 '잎'을 뜻하는 한자도 없고, '햇빛'을 뜻하는 한자도 없다. '경(景)'은 '영(影)'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번역에 '그림자'가 없다. 여기서 '푸른 잣나무 잎 깊숙히 햇빛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푸른 잣나무 잎 속까지 햇빛이 침투해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면 잣나무 잎은 아주 밝은 빛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햇빛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가을에는 햇빛이 옅어진다. 깊이 파고들 힘이 없다. 따라서 이는 그림자가 더 깊어지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문 원문을 정직하게 번역하면, '푸른(비취색) 잣나무에는 깊이 그림자가 머물러 있고'와 같은 것이 된다.

7) <셋 -> 과 <교차호 ->

(30b)의 '허첨교조도(虛簷交鳥道)'를 언해는 '빈 집 기슬겐 새길히 셋갯고'와 같이 번역하였다. 여기 '새길'은 '조도(鳥道)'를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주석에는 '교조도(交鳥道) 산중지도(言山中之道) | 험야(險也) | 라(교조도는 산속의 길이 험한 것을 말한다)'와 같이 되어 있다. 문제는 주석을 반영하면 '빈 처마가 산속의 길이 험하다'와 같은 말이 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빈 집 처마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길이 교차한다(새들이 빈번히 날아다닌다)'고 보는 것이 온전한 해석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보는 것은 주석과 언해문이 불일치이다. 주석은 주석대로 따로 행해지고, 언해는 언해대로 따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b)에도 ‘섞-’의 예가 있다. ‘사원교회정(沙苑交回汀)’을 언해는 ‘沙苑은 횡돈 몫 7이 섞것도다(사원은 횡도는 물가가 섞여 있도다)’와 같이 번역하였다. 여기서는 ‘물가가 섞여 있다’가 이해하기 어렵다. ‘물’이 교차하는 것이지, ‘물가’가 교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원은 물이 교차하여 빙 도는 물가에 있다’와 같은 번역이 온당하다.

8) <편안한 날들을 보내노라>

(36a)의 원문 ‘와아견소편(臥痾遣所便)’을 언해는 ‘병(病) 허야 누워 편안(便安) 혼 밧 믋사물 / 믋오물¹² 퍼노라(병들어 누워 편안한 바의 마음을 퍼노라)’와 같이 번역하였다. 문제는 원문의 ‘견소편(遣所便)’을 ‘편안한 밧 마음을 퍼노라’와 같이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원문에는 ‘마음을’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고, 또 원문의 ‘견(遣)’을 ‘전(展)’과 같은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편안한 바를 보내노라’와 같이 번역했어야 한다. 의역을 하면 ‘편안한 날들을 보내노라’와 같이 된다.

9) <전성거(專城居)>와 <‘자사(刺史)’ 벼슬>

(38a)의 원문 ‘역옹전성거(亦擁專城居)’를 언해는 ‘또 오온 성(城)을 뿌려 사나라와 같이 번역하였다. 여기서 ‘오온¹³ 성’은 원문의 ‘전성(專城)’을 번역한 말이지만, ‘전성(專城)’은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장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일반 용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 ‘전성거’는 ‘자사(刺史)’와 같은 벼슬이다. ‘전성거(專城居)’의 ‘거(居)’도 ‘살다’로 번역하여 ‘뿌려 살-’과 같이 번역하였으나, 이 또한 잘못이다. 역도들이 일정한 지역

¹² 이는 초간본과 중간본의 표기 둘을 나란히 보인 것이다.

¹³ 이는 ‘오올다’란 동사의 활용형이다.

을 점령하여 ‘산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역도들은 어떤 지역을 휩쓸고 또 다른 지역으로 달려가는 행태를 보이는 무리들이다. ‘거(居)’는 ‘전성거(專城居)’의 ‘거’로 벼슬자리를 뜻한다.

10) <야객> 과 <피리소리>

(41b)의 ‘야객빈류구설상(野客頻留懼雪霜)’을 언해는 ‘미해 소니 조 조 머므러서 눈과 서린가 저코(들에 나그네가 자주 머물러서 눈과 서린가 두려워하고)’와 같이 번역하였다. 여기서 가장 잘못 번역된 것은 ‘야객(野客)’을 ‘들에 나그네’와 같이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들에 나그네’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들만 돌아다니는 나그네’라는 것인가? 그런 나그네는 사실상 있을 수 없다. ‘야객’은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그것은 ‘두보’ 자신을 뜻할 수 있게 된다. 두보가 자주 녹나무 밑에 머물렀는데, 나무가 우거져 서늘하였으므로, 눈이 내렸나 서리가 내렸나 할 정도로 음습(陰濕)하였음을 말한다. ‘두려워하고’는 ‘의심하고’와 같이 해석해야 할 부분이다.

뒷구는 ‘행인부과청우뢰(行人不過聽竿籟)’를 ‘길 낼 사름미 지나가디 아니호 아셔 피릿소리 듣는 듯호더니라(길을 갈 사람이 지나가지 아니하여서 피리소리를 듣는 듯하였지)’와 같이 번역하였다.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 바람이 뽕뽕 불어 녹나무에서 피리소리 같은 것을 듣는 것을 말한다.

11) <문과 창에 대한 불만이 없다>

(45b)의 원문 ‘동편약면세(東偏若面勢) 호유영가안(戶牖永可安)’을 ‘동(東) 녀 7에 만일(萬一) 면세(面勢) 를 보아 지으면 호유(戶牖) 1기리어루 편안(便安) 호리로다(동쪽 가에 만일(땅의) 형세를 보아 지으면 집이 길이 가히 편안하리로다)’와 같이 번역하였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문과 창 [호유 (戶牖)] 이 편안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문과 창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과 창으로 시원한 바람이 막힘 없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불만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이 남향이어야 한다. 집이 남향이면 문과 창은 동향이 되고, 여름에 시원한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온다. 문과 창에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집터의 동쪽에 집채가 들어앉아야 한다. 동쪽 끝이 막힌 것이 가장 덜하기 때문이다. 앞구에서 ‘약 (若)’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순 (順)’의 뜻으로 ‘따르다’의 뜻을 가진다. 앞구 전체가 조건이 되는 것은 문맥에 의한 것이다.

12) < 서로 > 와 < 바탕, 성질 >

(51a)의 원문 ‘서박운안현 (栖泊雲安縣) 소중내상독 (消中內相毒)’을 언해는 ‘雲安縣에 와 브터 쇼니 消渴入 病이 안호로 서르 모디도다 (운안현에 와 붙어 있으니 소갈의 병 (당뇨병) 이 안으로 서로 모질도다)’와 같이 번역하였다. 주석에 의하면, 운안현은 기주 (夔州) 에 속한 현이고, ‘소중 (消中)’은 소갈병 즉 당뇨병을 가리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뒷구의 ‘상 (相)’이 ‘서로’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서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서로’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성립한다. 가령 ‘상부사조 (相扶相助)’와 같으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것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나 이웃이나 기관이나 나라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서로’ 모질다고 하였을 때 그 대립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않는다. 이때 한자사전에서 ‘상 (相)’을 찾아보면 ‘바탕’이라는 훈이 있다. ‘서로’의 자리에 이를 적용하면, ‘소갈의 병 (당뇨병) 이 안으로 바탕이 모질도다’와 같이 된다. ‘바탕’은 ‘내적인 성질’을 말한다. ‘내적인 성질’은 ‘내적인 양상’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원문 ‘소중내상독 (消中內相毒)’에 적용하면, ‘소갈병이 내적인 양상이 모질도다’와 같이 된다. ‘내 (內)’는 부사어가 아니라 관형어이고, ‘상’은 ‘서로’의 뜻이 아니라, ‘얼굴’과 같은 ‘모습, 양상’을 뜻하

는 것이다. 그것이 내적인 것이 되면 ‘성질’을 뜻하게 된다. 이 구성은 전체적으로 ‘이/가’주제문¹⁴ 이 된다.

3. 문법과 관련된 문제

문법과 관련된 사항도 어휘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어휘적인 문제와 함께 문법적인 고려 사항이 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1) < 한문 어순과 도치 구성 >

(2a)의 한문 원문 ‘급업토낭구(岾嶽土囊口)’를 언해는 ‘밧굶 이페 뵈히 늣도다’와 같이 번역하였다. ‘급업(岾嶽)’이 ‘늣도다’로, ‘토낭구(土囊口)’가 ‘밧굶 앞’으로 번역되었다. 주석은 ‘토낭(土囊)’을 ‘골짜기 입구[谷口]’로 보고 있다. 원문이 ‘토낭구(土囊口)’인데, ‘토낭’을 ‘골짜기 입구’하고 하면, ‘토낭구’의 ‘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토낭’은 말 그대로 ‘땅 주머니’ 혹은 ‘흙 구덩이’라고 해야 한다. ‘절구’와 같은 지형에 들어가는 길이니 절벽으로 둘러싸인 곳을 ‘땅 주머니’라고 한 것이다. ‘토낭구’는 그러한 길의 입구이다.

‘급업(岾嶽)’도 단순히 ‘늣도다’라고만 해서는 의미가 약하다. 그것은 적어도 ‘늣고 험하도다’와 같이 해야 한다. 의미를 살리려면 ‘산세가 험하도다’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 ‘급업토낭구(岾嶽土囊口)’는 그 어순이 도치된 것이므로, ‘산세가 험하도다, 그 땅 주머니 입구는.’과 같이 원문의 어순을 반영하는 것이 온당하다.

¹⁴ 이는 흔히 ‘이중 주어문’이라 하는 것이나, 필자는 ‘이/가’주제문으로 본다. 임흥빈(2007) 참조.

2) < 조사구 접속의 애매성 >

(9a)의 원문 ‘구당협구곡강두(瞿塘峽口曲江頭) 만리풍연접소추(萬里風煙接素秋)’를 언해는 ‘瞿唐峽 입과曲江머리에 萬리에 바람과 연기 맑은 가을에 이어 있도다’(구당협 입구와 곡강 머리에 만리에 바람과 연기가 맑은 가을에 이어 있도다)’와 같이 번역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의 하나는 ‘머리에’와 ‘만리에’가 동일한 처격 조사 ‘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머리에는’과 같이 해석하면, ‘구당협 입구’와 ‘곡강 머리’의 두 곳에 ‘만리’나 되는 연기와 바람이 걸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두 곳에 모두 만리나 되는 곳에 연기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지나치다. 이러한 해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당협 입구와 곡강 머리 사이에 만리에’와 같이 ‘사이’를 넣어 해석하거나, ‘구당협 입구와 곡강 머리(의) 만리에’와 같이 관형구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구당협은 두보가 있는 기주이고, 곡강은 장안에 있으므로, 그 사이가 만리나 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바람과 연기가 뻗어 있는 것(전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무리한 해석을 벗어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소추(素秋)’를 ‘흰가을’과 같이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소추(素秋)’는 문어(文語)로 ‘가을’을 가리키는 것이다. ‘소추’는 글자 그대로 ‘본디의 가을, 청정한 가을’과 같이 번역하면, 연기 낀(전란이 벌어진) 만리의 지역과 대조되기에 적합하다.

3) < 판정 의문과 의문사 의문, 기타 >

(16b)의 ‘금신오겸리은명(肯信吾兼吏隱名)’을 언해는 ‘내이 구의실호디 은거(隱居)를 겸(兼)한 일후를 어느 알리오’와 같이 번역하였다. 현대어로 풀이하면 ‘내가 벼슬 하되, 은일(隱逸)을 겸한 이름을 어찌 알겠는가?’와 같이 된다. 한문 원문은 의문사 의문이 아닌데, 번역문은 의문사 ‘어느’를 가지는 의문사 의문이 되었다. 그러나 ‘금(肯)’은 의문사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하겠느냐’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적인 존재이다. ‘금신(肯信)’은 ‘믿을 수 있느냐, 믿겠느냐’는 뜻이다.

다른 문제는 ‘오겸리은명(吾兼吏隱名)’에 대한 번역으로, ‘겸(兼)’이 ‘이명(吏名)’와 ‘은명(隱名)’을 등위 접속으로 가지는 구성이나, 언해는 ‘이(吏)’를 ‘ㅎ-’의 목적어로, ‘은(隱)’을 ‘겸(兼)ㅎ-’의 목적어로 번역하였다. ‘금신(肯信)’의 ‘신’은 청자에 대한 언어 수행적인 동사인데, 주어에 대한 기술적인 동사로 번역되었다. 그 결과 행위 동사 ‘ㅎ-’가 별도로 도입되고 인식의 주체가 바뀌고 있다. 이 구절의 번역은 주석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석은 ‘어찌 내가 비록 벼슬을 하고 있으나 은사의 흥취가 있는 것을 알겠는가?’와 같은 것인데, 이 구조가 거의 그대로 언해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는 흡사하다고 하더라도, 번역은 상당한 의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4) < 의문과 부정 >

(16a-b)의 원문 ‘엽심주실감시락(葉心朱實堪時落)’을 ‘넙 소갯 불근 여르믈 時로 떠러덤 직히니아’와 같이 번역하였다. 번역을 그대로 현대어로 옮기면 ‘잎 속의 붉은 열매는 때로 떨어짐 직한 것인가?’와 같이 된다. 의문문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평서문으로는 ‘잎 속의 붉은 열매는 때로 떨어짐 직하지 않다’와 같은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시인이 의도하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시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잎 속의 붉은 열매는 때로 떨어짐 직하다’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주실감시락(朱實堪時落)’은 ‘붉은 열매는 시절을 견디다 떨어지고’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의문문으로는 부정으로 물어야 긍정의 의미가 된다. ‘잎 속의 붉은 열매는 때로 떨어짐 직한 것이 아닌가?’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래도 ‘시(時)’의 문제는 ‘때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긍정의 평서문으로 번역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잎 속의 붉은 열매는 시절을 견디다(못 견뎌) 떨어지고’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 다른 문제는 원문은 의문사 의문이 아닌데, 번역문은 의문사 ‘어느’를 가지는 의문사 의문이 되었다는 것이다. ‘궁 (肯)’은 의문사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하겠느냐’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적인 존재이다. ‘궁신 (肯信)’은 ‘믿을 수 있느냐, 믿겠느냐’는 뜻이다. ‘어찌’를 가지지 않는다.

5) <‘유 (有)’ 구성과 주제 표지 >

(16b)의 원문 ‘부유루대함모경 (復有樓臺銜暮景)’을 언해는 ‘또 잇는樓臺 | 나죄 햇비출 머겟느니 (또 있는 누대가 저녁에 햇빛을 머금고 있으니)’와 같이 번역하였다. ‘유루대 (有樓臺)’의 ‘유 (有)’를 ‘있는’과 같이 번역하였으나, ‘유 (有)’는 문제의 대상을 주제로도입하는 기능을 하는 ‘유 (有)’이므로, ‘유루대 (有樓臺) | ’는 ‘누대는’과 같이 번역하여야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22b)의 원문 ‘유정주하시 (有井朱夏時)’에서도 언해는 ‘잇는 우므리 녀르메’와 같이 번역하였다. ‘유정 (有井)’을 ‘있는 우물이’와 같이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있는 우물이’는 한국어로는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다. ‘유 (有)’는 주제를 도입 하는 말이므로 ‘유정 (有情)’은 ‘우물은’과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

6) < 주어 ‘공 (功)’과 서술어 >

(31a)의 원문 ‘공림경등친 (功臨耿鄧親)’을 ‘공 (功)은 경엄耿弇) 등우 (鄧禹) 의게 임 (臨) 하야 친근 (親近) 하도다 (공 [功]은 경엄과 등우에 가깝게 임하였도 다)’와 같이 번역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공 (功)’에 대하여 ‘친근하 -’와 같은 서술어를 적용시킴으로써 선택 제약을 어겨 의미론적 적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 (功)’은 무정물이기 때문에 ‘친근하 -’와 같은 서술어와 호응 (呼應) 될 수 없다. 의인법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친 (親)은 ‘친근하 -’의 의미가 아니라 ‘가깝 -’의 의미로 해석

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공림경등친(功臨耿鄧親)’은 ‘공(功)은 경엄과 등우에 가깝게 임하였도다’와 같은 것이 된다. 선택 제약의 문제도 없어지고 문맥도 분명하게 된다.

7) <‘서(庶)’와 ‘바라다’>

(46a)의 원문 ‘적무근부향(寂無斤斧響) 서수계식환(庶遂憩息懽)’을 언해는 ‘괴외히 도끼 소리 그치니 거의 쉬여 이슬 환락(懽樂)을 일우리로다(고요히 도끼소리 그치니 거의 쉬고 있을 기쁨을 이룰 것이로다)’와 같이 번역하였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서(庶)’를 ‘거의(초간본: 거의)’와 같이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서(庶)’는 부사로 ‘거의’와 같은 뜻을 가지는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용법은 ‘서(庶)’ 또는 ‘서기(庶幾)’로 ‘~기를 바라다’와 같은 서술어로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뒷구의 문맥은 ‘거의’로써는 적합한 해석을 가질 수 없다. ‘거의’가 수식하는 적합한 대상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의 쉬고 있을 기쁨을 이룰 것이다’에서 ‘거의’는 ‘쉬[息]’를 수식할 수 없다. *‘거의 쉬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거의 쉬고 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기쁨’도 ‘거의’의 수식 대상이 되지 못한다. *‘거의 기쁨’이란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거의 이룰 것이다’는 성립할 수 있는가? 그럴지도 모른다. ‘집 짓는 것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집에서 편히 쉬고자 하는 ‘소망’이 거의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庶)’가 ‘거의’를 뜻한다면 ‘소망’의 뜻이 나올 곳이 없다. 이는 ‘서’를 ‘거의’로 번역하여서는 안 되고, ‘~기를 바라다’와 같은 서술어로 번역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고요히 도끼소리 그치니 쉬고 있을 즐거움을 이루기를 바라다’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다. 두보는 집 짓는 것을 끝내고 거기서 편히 쉬고 싶은 것이다. 주석에서도 ‘서기성언식지락야(庶幾成偃息之樂也: 쉬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을 이루기를 바라다)’와 같이 ‘서기(庶幾)’를 도입하고 있다.

IV. 맺음말

‘머리말’에 이어, 2 절에서는 ‘두시언해’가 한문 자료를 ‘언해’한 것이므로, 그동안 잘 밝혀지지 않았던 ‘언해’와 ‘번역’이란 술어의 쓰임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번역’의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주목한 것은 그것이 ‘언해’와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였다. ‘언해’ 문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언해 문헌은 대부분의 경우 ‘주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언해의 한문 본문에 대한 번역이 직역이 된다. 이에 대해서 책이름에 ‘번역’을 가진 문헌은 그 수가 매우 제한된 것이지만, ‘주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주석의 내용이 번역문에 포함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번역문이 의역(意譯)이 되게 된다. ‘언해’ 문헌이나 ‘번역’ 문헌이 똑같이 주석을 가지지 않은 경우, ‘번역’이 한문 본문에 나타난 것 외의 요소를 가지는 것을 의역으로 보았다.

《두시언해》 권 6의 번역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문화적 사실과 관련된 문제, 어휘와 관련된 문제, 문법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역사 문화적 사실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악기의 이름에 관한 문제와 임금의 이름과 시대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중국 특유의 악기에 대한 번역은 번역의 등가성(等價性)의 문제를 제기한다. 번역할 수 없는 것은 영번역(零翻譯)을 취할 수 있으나, 이를 ‘피리소리’와 같이 번역하는 것은 의역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양귀비와 관련된 인물을 ‘숙종’으로 주석한 것은 단순한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어휘와 관련된 문제에서 특기할 것은 원문의 ‘지(趾)’를 ‘불휘[根]’로 번역한 것이다. ‘지(趾)’는 ‘발자국’으로 ‘성터’와 같은 것을 뜻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뿌리’로 번역한 것은, 당시의 어휘 사용의 실태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오역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뿌리’가 ‘근거(根據)’를 뜻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터’는 ‘뿌리’가 아니라 뿌리의 자국인 것이다.

어휘와 관련된 문제에서 주목되는 다른 하나는 언해가 원문의 ‘내상독 (內相毒)’을 ‘안으로 서로 모질도다’와 같이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상 (相)’에는 ‘서로’의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탕’이나 ‘성질’의 뜻을 가지기도 한다. ‘내상 (內相)’은 ‘안의 바탕, 안의 성질’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으로 서로 모질다’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번역에서 벗어나, ‘내부의 성질이 모질다’와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된다. 번역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온다.

어휘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구성에서 원문의 구성이 다른 구성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예를 보았다. 원문은 의문사 의문이 아닌데, 의문사의 문으로 번역된 것, 원문은 등위 접속인데 종속 접속과 같이 번역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를 오역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역으로 충분히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을 의역으로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하나는 ‘유 (有)X’와 같은 한문 구성을 매번 ‘X가 있어’와 같은 구성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유 (有)X’는 주제를 도입하는 구성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X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 (庶)’를 거의 언제나 ‘거의’의 의미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서 (庶)’ 및 ‘서기 (庶幾)’에는 ‘~을 바라다’와 같이 해석해야 하는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의 언제나 ‘거의 / 거의’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이다.

두보의 시는 어렵다. 그의 시는 역사 문화적인 이미지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그가 산 시대는 외부의 침략과 내부적인 반란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하였다. 두보는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피난생활을 하였고 사천과 양자강 주변을 나그네로 쫓겨다녔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흑독한 시기를 두보는 중서성 (中書省)에서 공부 (工部)라는 작은 벼슬을 하면서 현종과 숙종 임금을 옆에서 보았다. 그의 경험의 폭은 궁궐 생활과 피난생활의 전 영역에 걸치는 것이다.

그의 정신적 경험에는 5천년의 중국 역사가 꿈틀대고 있다. 그의 시에는 역사 시대의 인물이 등장하고, 다시 그들이 살던 시대가 펼쳐지고 그들의 꿈과 야망과 문물이 등장한다. 그의 시에는 과거의 신화와 전설도 큰 몫을 한다. 그것이 직설적으로 등장하는 일은 드물다. 정교한 비유법 속의 매개물로 등장하는 일이 많다. 이 비유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보의 시에 이르는 길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두보의 시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두보의 시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물은 모두 그 고유의 한자로 표현된다.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물도 당시의 한자로 표현된다. 이것이 두시에 수많은 기자(奇字), 벽자(僻字)가 등장하는 이유이다. 이들 기자와 벽자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두시에 이르는 길 또한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하나의 한자는 또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자의 다의성(多義性)은 악명 높은 것이다. 다의가 시의 문맥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작용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또한 두보의 시에 이르는 길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한자 두세 자가 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되고, 그것이 지명이나 벼슬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 그 각각의 한자를 의미로 번역하는 오류는 처참하기까지 한 것이다.

《두시언해》 중간본 장유(張維)의 서문에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두보의 시를 번역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장유는 그것은 두보에 와서 시가 최고의 경지에 달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두보의 시는 가장 널리 유포된 것이고, 변화무쌍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따를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도 두시를 읽은 사람이 아주 드물다. 두시에 숨은 비밀의 뜻과 오묘한 말을 밝혀 내는 것은 두보의 시를 읽는 누구나 어려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시언해’ 25권 전권을 언해해 낸 우리 선조들의 공은 높이 사서 마땅한 것이며, 그들이 범하였을지도 모르는 작은 흠

결들은 전혀 과장할 것이 못 된다. 단 하나 큰 흠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주석과 본문 번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분류두공부시》 권 6 (초간본 / 중간본).
- 구로카와 [黒川洋一] (1959), 《杜甫》上, 下, 東京: 岩波書店.
- 구조오 (仇兆鰲) 주, 진량점 (秦亮點) 교 (1996), 《杜甫全集》 1, 2, 3, 北京: 珠海出版社.
- 국립국어연구원 편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조선왕조실록》.
- 권경열 (2012), 《한문고전번역의 특성과 과제》, 인문논총,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만원 외 5 인 역해 (2004), 《두보 위관 시기시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만원 외 6 인 역해 (2007), 《두보 진주 동곡 시기시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만원 외 6 인 역해 (2008a), 《두보 성도 시기시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만원 외 6 인 역해 (2008b), 《두보 제주 낭주 시기시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정우 (2005), 한국번역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 두보 (杜甫) 저, 구조오 (仇兆鰲) 주 (1979/2009: 중인), 《두시상주 (杜甫詳注)》 1, 2, 3, 4, 5 (전 5 권), 북경 (北京): 중화서국 (中華書局).
- 안병희 (1997), 두시언해의 서지적 고찰, 《한국문화》 1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21. [참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1998), 109-131 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2), 229-248 쪽.
- 이현희 · 이호권 · 이종묵 · 강석중 (1997a), 《두시와 두시언해 6》, 신구문화사.
- 임흥빈 (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임흥빈 (2022a 예정),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 6 (상),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임흥빈 (2022b 예정),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 6 (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함영대 (2019), 맹자 번역의 몇 가지 문제 : 번역의 목적과 논리 , 체재의 맥락에서 , 《고전번역연구》 10, 43-64 쪽 .

Jakobson, R. (1957),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A. Brower (ed.), *On Translation* (pp. 232-239). Harvard Univ. Press.

Nida, E. A. (1964), *Towards a science of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E. J. Brill.

Some Questions on the Translation of *Dusieonhae* (杜詩諺解) Volume 6

Hong-Pin Im^{*}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some questions or possible disagreements with the author(s), which appear in the *Chosun* (朝鮮) period's translations of *Dusi* (杜詩), usually called *Dusieonhae* (杜詩諺解). Among others, we concentrate our attention only to Volume 6. First of all, we make it clear what difference lies between “Translation (翻譯)” and “Eonhaae (諺解).” The former indicates liberal (or indirect) translation, and the latter indicates literal (or direct) translation. Unexpectedly, *Dusieonhae* (杜詩諺解) Volume 6 contains dubious examples of direct translation. These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1) problems related to historical or cultural facts, (2) problems related to lexical correspondence, and (3) problems related to grammatical analyses. (1) takes issues with historical wrong facts, and deals with the problems of translating objects that have not cultural equivalence. (2) deals with the problem of faults or nonconformities in lexical translation, and (3) deals with incorrect analyses of grammatical constructions.

Keywords: *Dusieonhae* (杜詩諺解), Liberal (or Indirect) Translation, Literal (or Direct) Translation, Historical or Cultural Facts, Lexical Correspondence, Grammatical Analyses

^{*}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